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다양한 소리가 있다

“뒤편에 뭐해”, “뒤편에 뭐해” 반복되는 “뒤편에 뭐해”에 귀가 쫓겨나. 짧다 짧다 순간 터져 나온 알람을 소리다. 너도, 나도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본다. “누구야” 라는 표정이다. ‘무음 모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쾌하지 않다. 서로 웃으며 눈인사를 나누기 바쁘다. 이른 출근이라 생각하고 들어선 교무실,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창문을 열어 환기에 정리된 책상마저 업무 모드다. 오늘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던 찰나, 컴퓨터가 윈도우를 지나 화면을 띄우면 일과가 시작된다. 그때, 특이한 소리가 있다. 이 손님이 바로 SNS 카카오톡의 알람음 중 하나인 “뒤편에 뭐해”다. 보통 사람들은 “카톡”, “카톡 카톡”을 주로 알람음으로 선택한다. 카톡 설정 알람음으로는 “자니”, “사랑해”, “큰대”, “야”, “메시지 왔어요”와 국악, 피아노, 휘파람 등 다양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다. 시골 학교에 근무하면서 받은 선물 중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풀벌레 소리다. 이 가을이 지나고 눈이 내리면 한동안 들을 수 없는 소리다. 뜨거운 태양이 절정인 8월의 반딧불 방과후학교 학생관리를 위해 초과 근무하던 날로 기억한다. 교실 창문을 통해 흐르는 불빛과 감사 선생님의 목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감사한다.

몽친 어깨를 풀고 신선한 바람을 친구삼아 교정을 걸으며 잠이 들었다.



박 여 범
음복중학교 · 시인 · 문학박사

교무실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보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사이로 들려오는 조용하면서 힘 있는 풀벌레 소리에 나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3분 정도 분량을 저장하고, 들어보고, 저장하고 들어보기 작업을 몇 차례 했다. 현장에서 들었던 풀벌레의 합창은 소리로 응징했다. 그러나 녹음해서 들어보니 그 장점이 반감되었다.

그냥 ‘귀에 담이두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았다. 그래서 저장한 파일을 삭제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귀에 담기’를 선택했다. “찌르르르, 쓰르르르르르, 찌르르르르, 찌르르르, 쓰아아아, 푹푹푹...” 등 다양한 풀벌레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거대한 음악회가 열린다. 초대장 없이 다가온 불청객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오케스트라 연주다. 이 멋진 연주와 밤하늘의 별을 혼자만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운 순간이다.

“컴컴한 이 밤에, 선생님, 뭐 하세요?”
“하늘은 왜 울려다보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지가, 저 별 다 따다 드릴까요?”
쉬는 시간,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녀석들이 다가오며 던지는 질문이다. 다가온 아이들을 하나둘 잡아 함께 별들이 빛나는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시골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녀석들도 수많은 별의 향연이 신기한 듯 바라본다. 다음으로 귀에 담을 풀벌레 소리 무대를 찾아 귀에 담았다. 교실에서 들었던 이러한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 하며 귀를 쫓겨 세우는 녀석들이 귀였다.

아이의 응원이처럼 재질재질 종알 종알 다가오고 오케스트라 무대를 누비는 풀벌레의 날갯짓 향연 “찌르르, 쓰르르르르르, 찌르르르르, 쓰아아아, 푹푹푹...” 등 다양한 풀벌레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거대한 음악회가 열린다. 초대장 없이 다가온 불청객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오케스트라 연주다. 이 멋진 연주와 밤하늘의 별을 혼자만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운 순간이다.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익숙한 벨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진

다. 그 소리에 묻힌 자연의 소리는 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악보도 없는 무대를 이어간다. 관객은 줄었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 수업에 들어가 녀석들이 흥얼거릴 풀벌레들의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꾸준함’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녀석들을 위한 ‘음악회’처럼 다가왔다.

이처럼,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나 BTS 같은 세계적인 가수의 앨범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소리는 다양하다. 비단 정가래를 의지한 상반된 목소리만이 아닌 기계음도 넘쳐나는 시대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귀를 열어 들어야 하는 소리의 정체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소리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꽂대’를 높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쟁취’하기 위해 내는 소리, 조용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소리, 헤비메탈과 발라드 ‘음악’ 같이 그 목적에 따라 소리의 양상도 다르다. 어느 소리를 다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다양한 소리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깁없이 나눌 수 있는 ‘풀벌레의 연주’처럼,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하는 소리마당에 귀를 열어야 한다. 내가 먼저 귀를 열고 한발 앞서 손을 내밀어야 가능하다.

귀와 마음에 담아야 할 다양한 소리가 있다.

사설

전북 대도약, 증액된 예산이 답이다

전북 대도약은 예산 증액이 답이다. 여러가지 해법이 있을 테지만 역시나 최고의 해법은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무슨 일이고 돈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뜻이 높고 열망이 뜨겁다 해도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에 보통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예전에 보여주었던 수준 그 이상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나 예산 증액 확보는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그래서 시기 적절한 일이다. 그래도 여기 할 말이 있는데 전북도의 핵심 규모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7조원대 예산 확보에 힘을 쏟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올해와 비교해 대폭 예산이 늘지 않는다는 지역발전을 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전북도가 여러차례 말한 바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전북도는 도민의 열원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

업이며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등 그 핵심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전북도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좀 더 힘차게 뛰어아왔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줘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전북도가 도민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 어렵다. 청사진대로라면 진척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함만 안기고 있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절박한 행보는 마땅치 않다. 전북 발전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한다. 발전 보폭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마음에 안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전북도는 좀더 실력 발휘를 해주어야겠다.

국제탄소페스티벌과 전북의 위상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 탄소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지금이다.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250여개 기업을 참여시키고 있으니 대단한 규모의 행사이다. 그래서 전북 탄소산업의 위상이 한결 돋보이고 있을 거라는 기대이다. 그래도 행어나 하는 마음에 관계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대로 흡족함을 말해서는 안 되고 전북 탄소산업을 보다 더 성장시켜야 한다는 당부이다. 이번 기회에 국내 탄소산업의 선두주자 자리를 확실히 굳히자는 이야기다.

탄소산업에 관한 한 전북도는 그 어느 광역지자체보다도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전북 탄소산업의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추진해온 역사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전북 발전을 약속했던 만큼 대형 사업으로 꾸준히 키워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의 탄소산업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해야 한다. 후발주자인 다른 광역지자체가 한국 탄소산업의 대표주자가 되려고 욕심을 품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공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기대한 만큼의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욕심

을 내야 한다. 전북도가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업군이 크지 않다면 전국 상용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터이다.

현재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전북의 탄소산업에 대해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맨처음 백년먹거리 사업이라며 홍보할 때만해도 관련기업 240개 유치와 6만5천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었다. 그래서 오늘날 탄소산업의 현실을 보면 아쉬움 그 자체이다. 홍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된 인원이 아직은 많이 적으니 말이다. 그리고 효성 공장에 대해서도 짚어볼 게 있다. 2013년에 준공할 때 2020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순조롭게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제 탄소페스티벌이 한창인 지금 전북도는 탄소산업에 관한 한 최고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추후 탄소산업을 명실공히 전북 최고 프로젝트로 키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 할 말이 또 있다. 전북도가 오래 전부터 말해온 그대로 탄소산업을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버스 정류소에 중계되는 트럼프 탄핵 조사 청문회



13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버스 정류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미 하원의 탄핵 조사 공개청문회가 TV로 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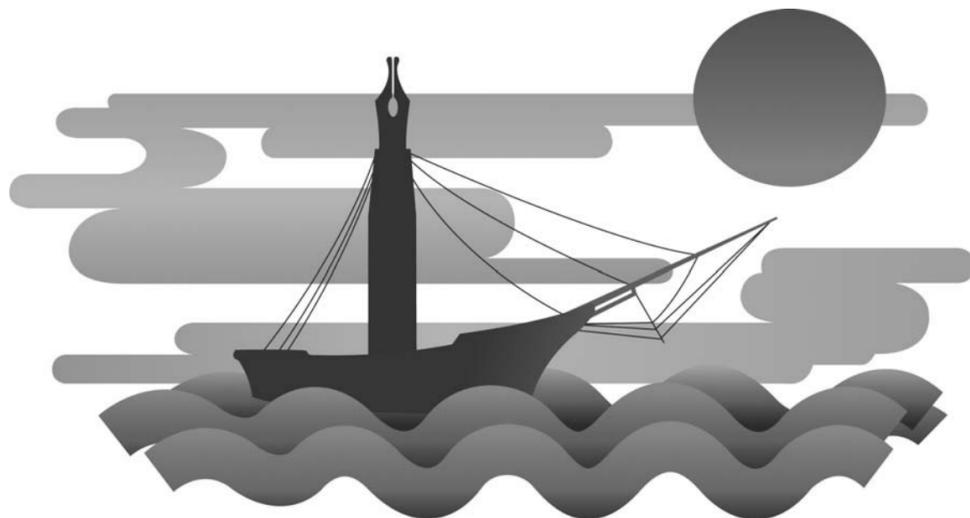
“터키는 시리아에서 나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백악관 밖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침공을 비판하고 쿠르드족의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